

1%대 예금비중 사상 첫 '두자릿수' 제로금리 본격화 ... 언제 돈 모으나

초(超)저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체 예금 중에서 1%대 금리를 주는 예금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사실상 제로금리인 1%대 예금이 점차 대체되는 모습이다.

은퇴 후 이자생활자와 저축으로 돈을 모으는 월급쟁이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30일 한국은행의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7개 국내 은행이 10월 현재 출시한 정기예금 상품 중 12.4%가 2.0% 미만의 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예금은행의 금리수준별 수신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대 예금 비중은 지난 9월 6.9%를 기록하면서 사상최대를 기록한 뒤 두배로 경총 뛰면서 한 달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 이상 3% 미만'의 예금 비중은 10월 현재 87.5%다. 이로써 1~2%대 예금이 전체의 99.9%를 차지하게 됐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대 예금 비중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장에서 1%대 예금의 체감도는 더 높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 고시된 17개 은행의 35개 정기예금(1년 만기) 중 1%대 금리는 총 9개(25.7%)를 차지했다.

지난달 말 현재 예금은행에 맡겨진 돈(총수신)에 적용된 평균 금리는 1.97%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해 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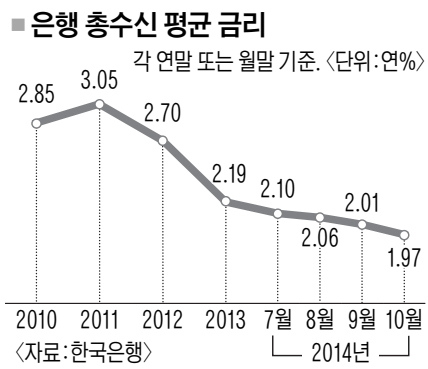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연 2.18%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금리로, 지난 3월 이후 8개월째 사상 최저 행진을 지속했다.

1%대 예금 비중이 이같이 늘어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한은이 8월과 10월 두 차례 완화적 통화정책을



전체 예금 중에서 1%대 금리를 주는 예금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제로금리가 점차 대체되는 모습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7개 은행 예금 중 12%가 2.0%미만 이자생활자·월급쟁이들 생활 더 팍팍



결정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연 2.00%)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춰 수신금리도 내리게 된 것이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은행들로서 굳이 높은 금리를 쳐주면서까지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가 본격화하자 예금 유치에는 거의 관심을 쏟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예금에 붙는 우대금리도 대폭 축소해 유명무실하게 만든 상태다.

이처럼 1%대 예금이 판을 치다보니 저축 의욕은 바닥을 기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순저축률은 4.5%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정점(24.7%)을 찍었던 저축률은 2001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3.4%로 OECD 평균인 5.3%에 훨씬 못 미친다.

9~13%에 달하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물론 저축 안 하기로 유명한 미국(4.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AMSUNG 삼성증권 12월 증시 전망

기업 실적발표·日 총선 ... 수출주 주목하라

12월은 11월과 마찬가지로 대형주에 우호적인 장세를 예상한다.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11월 조산업종을 필두로 화학,에너지 등 낙폭과대주의 반등이 있었다면 12월은 경기민감주, 특히 수출주의 상승을 예상한다.

12월 4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 대상이 회사채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탈라갈레 및 원화약세 흐름은 외국인의 순매수 가능성을 높여 국내 대형 수출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지금처럼 1100원대 원달러 환율이 유지된다면 2015년 초에 시작되는 14년 4분기 실적발표 시즌에는 수출주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12월 중 진행되는 일본 총선을 주목해야 한다. 아베정부는 전격적인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고, 총선을 통한 재신임을 평가 받기로 했다.

현재는 자민당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2차 소비세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아베노믹스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경제정책을 신뢰하고 일본에 쏠렸던 글로벌 투자자는 주변국으로 관심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증시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계절적 요인 또한 우호적이다. 최근 10년간 외국인용 필두로 한, 연말 배당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은 우호적인 수급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대차잔고는 연말에 감소하고 연초에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이기에 최근 대차잔고 증가를 상위 종목들은 숏 커버링 가능성을 염두해 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업종별 변동성은 주의를 요한다. 연말 연초에 발표될 4·4분기 실적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업종별 변동성 확대를 조심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4분기 실적은 예상치 대비 평균 36% 이상의 어닝쇼크가 발생했었기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핵심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지수는 1950 ~ 2050 포인트 박스권을 예상한다. 상장기업 이익의 절반가량을 차지해온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의 이익 모멘텀 부재로 국내 주가지수의 상승 동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1100조에 달하고 있고



김태현 삼성증권 호남권역장

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내수 소비 역시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수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중국 분토시장에 쏠려 있다. 지난 11월17일 후강통이 시행된 이후로 중국분토 외국인 투자한도 소진율은 약 13%이다.

이와 같은 속도라면 빠른 시일 내에 총투자한도인 3000억 위안이 소진될 것으로 본다.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12월은 올해 IPO 최대 규모인 제일모직 공모가 10일~11일 이틀간 진행된다. 희망공모가 밴드는 4만5000원~5만3000원이다.

공모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기대불만한 이벤트를 기대한다.

'베트남 새댁'도 국민연금 혜택 본다

내국인과 결혼 외국인 배우자

연금 당면 가입 법개정안 발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새댁도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국인과 결혼해 혼인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발의됐다.

현재 각 국가 간에는 서로 연금제도를 인정해주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다

문화 가정을 꾸린 베트남 출신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많은 베트남 새댁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의 혜택을 못보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외국인이라도 한국 사람의 배우자라면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는게 이들 다문화 가족의 권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젊을 때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매달 노령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다.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발전우체국직원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 포함)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학생 등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 빠진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가입 보험내역 조회 쉬워질 듯

생·손보험회 홈페이지 신청 가능

1일부터 자신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자금은 보험소비자가 가입 보험현황을 알아보려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손보험회가 제공하는 생·손보험 가입 조회제도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보험 중복가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늘부터는 생·손보험회 홈페이지중 어느 한 곳에서만 보험가입조회를 신청해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단 보험계약에 한하며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보험을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 조회 신청 과정에서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허용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별도로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고, 공인인증서가 다른 PC에 설치된 경우 보험조회 자체가 어려웠다. 특히 고령층의 사용방법 숙지 미흡에 따른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도 가능해진다. 적용 시기는 12월 중순부터다.

/연합뉴스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가 6억 7천
(보 4천, 용 1억 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 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 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동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382-55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산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 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및,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 8천

010-6832-9700

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 → 1억 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 1천만
(보 1천, 월 70만, 용 5천만)

062)527-7600

경매 무료 교육

운암점 챔피언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기본반 · 고급반
실전문 · 평생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시대
교육화 실천가능

010-6832-9700
062)513-4900

경매 무료 교육

상무지구 12월 1일
12월 1일 오피스(상무지구)

최고의
실전문
모집중

010-6670-9800
062)382-55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① 서구 화정동 (토 171㎡, 건 501㎡) 감정가 2억7천 최저가 1억9천
②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7천
③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정가 17억 최저가 11억
④ 서구 치평동 (토 1599㎡, 건 17380㎡) 감정가 223억 최저가 156억
⑤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⑥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정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⑦ 남구 백운동 (토 315㎡, 건 635㎡) 감정가 5억 최저가 3억5천
⑧ 북구 문흥동 (토 216㎡, 건 353㎡)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
⑨ 북구 문흥동 (토 193㎡, 건 338㎡) 감정가 2억3천 최저가 1억6천
⑩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정가 10억 최저가 7억5천

토지

①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 3974㎡) 감정가 45억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지,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특수물건(공사중 건물 동구 용산동)

① 동구 용산동 (토 1316㎡) 감정가 16억 2천 최저가 11억 3천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